
하느님의 사업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3주간

제3주간: 하느님의 사업 들어가는 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선택하시어 당신 곁에 두신 백성입니다. 엄중한 자각이자 깊이 떨리는 진리이죠. 이 계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의 “모상으로 그분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우리에게는 지적인 생활과 의지의 자유가 가능합니다. 생각을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닮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과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다른 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욕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각각 ‘인격’이시기에 무한히 구분되고 절대 고유합니다. 그러면서도 세 위격은 각각 다른 두 위격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요한 17,10) 아들이 있는 곳에는 그분의 성령도 계십니다.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 우정, 관계가 모두 당신이 누구인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모두 당신 자신의 친밀한 일부인 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유사성은 어떤가요?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창조된 모상인 그분이 사랑을 사십니다. 하느님이 사랑을 사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그 사랑을 되돌려드리며 그 두 분은 그분들의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같으므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자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나자렛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와 하느님의 총애”가 자라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가 자라서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이번 피정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에페 3,16)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 인간이 당신 주변의 세상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을 어디에 뿌리든지 거기서 맛을 내고 빛이 자체 발광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과의 유사성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에서 점점 더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를 더 내어주게 됩니다. 당신은 더 창의적이 되고 기쁨 안에서 거룩해지며 거룩함을 쉽게 퍼뜨리게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당신도 자비로운 사람입니다”(루카 6,36 참조)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 사시는”(에페 3,17 참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혹은 문법적으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유창하게 혹은 더듬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에서 자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에페 3,19)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서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하느님이 설계하신 것이니 그분이 틀림없이 그것을 적당한 당신의 시간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 도움말

숙고해 볼 것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시편 작가와 예언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숙고해 왔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과 나누는 이 대화는 모든 세기를 통하여 성숙한 제자들이 자라 온 그 방식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법이라고 알려진 영적인 수련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궁리도 했습니다. 정신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때때로 주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 자신이며,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다”(히브 4,12)고 처음부터 믿어 왔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서를 일종의 성사로 간주해 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궁리할 때에 말씀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님에게서 직관과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기도 방식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방식으로 성 암브로시오와 성 아우구스티노가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 비오 신부님과 성 마더 테레사 역시 이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주교들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방법을 권장하였습니다. 성경에 관한 위대한 교령인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에서 주교들은 우리 모든 제자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40년 후인 2005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교황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성경을 읽으면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독서자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 중에 마음을 열고 신뢰하면서 응답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모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네딕토 16세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이 실천으로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3주간 1일차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과 대화, 행동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에 직결된다.

- 아브라함 조슈아 해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이 배운 대로 렉시오 디비나를 활용하세요.
당신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읽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관상하세요.
2. 이번 주간에: 우주에 대해 하느님이 어떤 구상을 했을까요?
지성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그분의 업적을 알고 그 안에서 영광을 드러야 할 것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요 당신이 그분을 잘 알기를 바라십니다.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에페 1,17-23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단상

충만하게 살기, 하느님의 영광

성 이레네오는 “하느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적은 대로 우리는 인용하지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말을 개인주의적 의미로 축소시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항상 선이라고 상상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필요로 하며 참다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할 뿐이죠. 이는 세속적인 문화에서 제자가 따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성 이레네오는 인간이 지닌 열정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진리를 옹호하였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하느님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성 있는 당신의 열정은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진화 과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멸의 영혼, 사랑의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만들어진 ‘살을 취한 영enfleshed spirit’에서 비롯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느님의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이 있고, 거기서 궁극적인 갈망이 샘솟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마음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당신이 느끼는 가장 진정한 열망, 하느님과 이웃과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에텐동산에서 인간적 열망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자 다른 사람이 해주기 바라는 것을 원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욕구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에 협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6항 참조) 지금의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게 있는 진정한 열망과 욕구는 나로 하여금 하느님이 바라시는 인간, 영원히 사랑하는 인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직접 혹은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열망들을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면, 결혼 서약이나 독신의 신분에 충실하려는 나의 소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모두를 존엄하게 대하겠다는 나의 선택 등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늘 조화가 되지를 않지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은 조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 조화를 깨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말이지요. 그 결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갈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탐욕과 지배욕으로 얼룩지게 되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00항)

하느님의 설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마음과 정신 그리고 열정에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열망이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성소의 길은 단지 부과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느님의 뜻을 열망하고 욕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식별하는 겁니다. 시작은 나 자신의 열망과 욕구를 의식하고 내 행동에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부터 합니다. 기도가 요구되지요, 지금 당신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욕구하는 것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욕구들과 절대적으로 모순된다면, 이제와 영원히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찾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모두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태양처럼 빛을 내
면서 거닐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방법을 못 찾
겠습니다.
- 토마스 머튼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읽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사색할 때에
당신은 열정을 다해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주간에: 우주에 대해 하느님이 어떤 구상을 했을까요? 하느님이 세우신 구도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당신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가요?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5,1-2.13-16

예수님께서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단상

도공과 도자기

“때가 차자”, 곧 창조주 하느님이 땅을 잘 마련하였을 때에, 성부와 성령께서 외아드님을 우리들 속에 보냈습니다. 강생을 위한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선택한 겁니다.

삼위 하느님은 하나의 설계에 착수하신 겁니다. 성령은 부모님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아이를 기르게 하였습니다. 두 분이 살을 취하신 나자렛 예수님의 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주님이신 하느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실 때에 동일한 설계를 따랐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시기 위해 기다란 가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 부모가 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고 둘을 결합시켰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살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창조주 하느님은 당신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떤 부모, 형제자매와 살게 될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대로 당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달라졌겠죠.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공은 사용할 흙을 고르고 어떤 모양을 만들지 구상하고 크기와 무게는 얼마로 하고 어떤 색깔로 칠할지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라는 동안 하느님 성령은 당신에게 재능과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내내 성령께서는 생명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이 갈망들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령은 당신을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듣고 있습니다.

메모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뱃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
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디 내지 못하겠습니다. - 예레 20,9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읽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사색할 때에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문화와 당신 머리에 속삭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모든 태양과 별들에 대해 생각해 두신 데에는 당신이 포함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 함께하자고 하시는가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당신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가요?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5,1-2.13-16

예수님께서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사람을 묘사한다면 이다.

이와 비슷한 특징이 나에게도 있는데 그것은 이다.

빛은 밀도와 색조가 다르다고 한다. 마치 LED와 초가 다른 것과 같다.
내 신앙이 내는 내면의 빛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과 같다.

하느님께서 주신 내 안의 빛에 대해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슬픔은 칠죄종 다음가는 여덟 번째의 죄입니다.
슬픔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렉시오 디비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와서 마음과 정신을 관통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은 당신의 설계를 계속 지탱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초대하시고 당신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의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청합니다.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1,1-9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단상

신앙은 자란다

대부분의 성숙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만, 종교는 과하다는 생각인 거죠.

놀랄 일이 아닙니다. 더 놀랄 일은 우리가 아직도 신앙인이라는 거겠죠.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가정으로 꼽힐 겁니다.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 존엄성의 일부로서 우리가 “하느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응답은 자유로워야 한다.”(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존엄성」, 10항 참조)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에 머물고 있는 성숙한 제자는 신앙이 위대한 선물임을 잘 압니다. 교리서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

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이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마태 16,17)라고 밝히신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항)

모든 성숙한 제자의 신앙은 같은 성부에게서 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세요. 틀림없이 유일무이한 방식일 것입니다. 하느님이 몸소 우리를 각자 직접 대하시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당신은 신앙이 교회, 즉 시대를 관통하는 믿는 이들의 통공인 교회 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치죠. 밀가루 반죽은 오븐 없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앙도 교회를 달구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신앙의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세요.

메모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 시편 39,8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억하세요. 렉시오 디비나는 마음에 울리는 단어들에 집중하거나 밑줄을 긋고 저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전체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의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청합니다.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1,1-9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 말을 듣고 드는 느낌은?

내가 신앙의 선물에 대해 마음을 연 경우들은 이다.

내 신앙은 어렸을 때와 달라졌다고 본다. 성장한 것이 있다면 이다.

신앙의 선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려면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

주님께 청하고 싶은 것은 이다.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당신이 불타는 떨기를 만나게 되거든 하느님이 품고 계시
는 전망을 알려 달라고 청하세요.

- 무명씨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하느님과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모두가 선물입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고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향한 길에 있다고 느낍니다.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
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사도 17,22-28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
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
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단상

하느님의 영광 ... 충만하게 살기

며칠 전 단상의 주제가 “하느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다.”였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갈망들이—사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욕구와 갈망, 자비로워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싶은 갈망들—실행되면서 그 갈망들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 주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들을 살아 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레네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심오합니다. 이레네오가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은 하느님이 소통하고 공유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느 설교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현하고 감사하는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이 영광을 구현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임을 알기에 우리 자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우리를 보는 겁니다. 온 누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 형제로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살아갈 힘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자렛 예수님을 기르실 때에 예수님을 형성한 같은 성령께서 나와 우리 제자들 모두를 성자의 모습으로 형성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충만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기쁨이 충만한”(요한 15,11) 상태입니다.

메모

하느님의 사업

청하는 은총

내가 그리스도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그분의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모든 여정에는 여행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의미가 있다.

- 디트리히 본회퍼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하러 가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최상의 습관임이 틀림없습니다.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하느님과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시는가요?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유익할 것임을 굳게 믿으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격한 불가지론자를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석이 철분을 당기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4. 청하세요: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선택되었음을 체험으로 알고 당신의 그 선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사도 17,22-28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나는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에 당신의 안식처를 꾸리시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때에 내게 주신 그분의 선물을 개봉한다.

순례 여행 중인 나는 로 보아서 이 길이 내 길이라고 느낀다.

표지석

-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어졌기에 지적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항상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기에 거룩함과 사랑을 선택한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
-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도 신앙의 선물을 주셨고, 영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 근본으로 가면, 제자인 우리 인생의 소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